

2017 새 설계

김종규 부안군수

“행복도시·맞춤형 복지 실현...살맛나는 부안 만들기 집중”



김종규 부안군수는 15일 “지나해는 부안 정명 60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치른 한해였다면, 2017년은 새로운 미래 전년을 향해 힘차게 비상하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새해 포부를 밝혔다.

김 군수는 올해 살맛 나는 스마트도시, 쉼 맛나는 치유문화, 일할 맛나는 소득터전, 놀 맛나는 기찬 풍경, 자랑할 맛나는 깊은 울림이 있는 부안군을 가꾸기 위해 더욱 고삐를 죄는 각오다.

그는 특히 지난 2016년 다양한 분야에서 역대 최고의 성과를 달성한 만큼 이를 바탕으로 2017년 정유년에는 그동안 부안군정이 제시한 새로운 미래 전년의 비전을 하나씩 구체화하는 해로 만든다는 구상도 내놔다.

김 군수는 올 첫 과제로 군민이 편안한 행복도시와 맞춤형 복지 실현을 통해 행복한 부안 만들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김 군수는 “공공 노년주택 건립을 통해 어르신들이 행복한 부안을 실현하고, 청호권역·내소사 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농촌을 건설하겠다”면서 “특히 청림·목정·남포 소하천 정비사업을 통해 각종 재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줄포면·백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과 계

교통·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확충

생애주기별 검진 프로그램 운영

줄포가족호텔 건립...관광도시 구축

화면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등 지역개발에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군수는 또 “도로·교통·에너지·통신·생활안전 등 공공서비스를 확충해 민생기반을 편리하고 안전하게 지원하는 한편 모든 군민의 건강을 생애주기별로 검사하는 건강검진 프로그램을 운영해 보건의료분야 만족도를 향상시키겠다”면서 “노인·여성·아동·청소년·장애인·다문화가정 등 사회취약자를 우선 배려하는 복지서비스도 운영해 복지사각지대 최소화 등 소외받는 군민이 없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군수는 이와 함께 올해를 여유와 힐링이 가득한 축복의 땅 부안, 부안에 오면 오복을 가득 받을 수 있는 ‘부래만복(伏來滿福)’의 고장 부안 실현의 원년으로 삼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김 군수는 이를 위해 “도심 속 자투리땅을 활용

한 ‘내에게로 2구간’과 에너지테마거리 등을 통해 일상과 가까운 거리에서 삶의 여유를 찾을 수 있는 명품 정원문화도시 부안을 구축하고, 다양한 문화공연과 예술전시를 통해 모든 군민이 문향과 예향으로 거듭나고 일상의 피로를 치유할 수 있도록 인문학적 감성이 풍부한 부안으로 만들겠다”면서 “명품 힐링 관광지로 새롭게 변모하고 있는 줄포만 갯벌생태공원에는 가족호텔을 유치해 부안힐링타운의 초석을 다지겠다”고 밝혔다.

김 군수는 이어 “2017년 부안군정의 최우선에는 당연히 군민이 있다”며 “군민들이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풍부한 소득터전을 가꾸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군수는 또 “곰소다용도부지 매각과 농공단지 입주기업 유치, 제3농공단지 선분양 등 투자유치를 촉진하고, 체재형 농가실습농장과 어업인안전센터, 귀농귀촌복합단지, 한방약초재배단지 등을 조성해 농어업인들의 소득 창출에 나서겠다”며 “특히 외식 카페가공시설 및 체험장 신축과 직거래장터 확대 운영, 로컬푸드직거래 유통시설, 차맥·한우거리 조성 등 차별화된 정책을 통해 지역 농특산물의 유통 다변화도 모색하겠다”고 강

2017년 역점 사업은

- ▲군민 모두가 편안하고 행복한 희망도시 건설
- ▲여유·치유 가득한 명품도시 ‘부래만복’ 완성
- ▲소득터전 풍부한 살기 좋은 축복의 땅 조성
- ▲다시 찾고 싶은 글로벌 명품관광도시 구축
- ▲2023년 개최되는 세계잼버리 유치 실현

조했다.

김 군수는 이 밖에도 올해는 부안관광을 국내를 넘어 국제관광으로 그 기반을 넓혀 글로벌 명품관광도시 건설을 꿈꾸고 있다. 그 핵심은 2023 세계잼버리 유치다.

김 군수는 “전 세계 163개국 5만여명이 참여해 800여억원의 생산유발효과가 기대되는 2023세계잼버리 유치를 놓고 현재 폴란드와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으며 오는 8월 아제르바이잔에서 열리는 세계스카우트연맹 41차 세계총회에서 최종 결정된다”면서 “반드시 2023 세계잼버리를 유치해 글로벌 부안을 전 세계에 선보이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민준기자 jun@kwangju.co.kr

김승수 전주시장 “눈치보지 말고 꽃선물 주고받기를”

화훼업계 살리기 나서

김승수 전주시장이 최근 정기인사를 맞아 축하 꽃바구니나 난(蘭) 선물을 적극적으로 나눠주고 나서 눈길을 끈다. 이는 전주시를 비롯한 전국적 자치단체에서 지난해 9월 ‘김영란법’ 시행 이후 축하 화환 및 선물 등을 ‘금기사항’으로 여기고 있어서다.

김승수 전주시장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부정청탁금지법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꽃 선물 받기는 가능하지 않느냐”면서 “서로 눈치 보지 말고 승진이나 전보 인사 시 꽃바구니 또는 난을 선물했으면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자칫 접대문화와 부정부패를 뿌리뽑자는 ‘김영란법’의 시행 취지에 역행하는 듯

한 김 시장의 과감한 주문은 김영란법 시행으로 직격탄을 맞아 시름하는 관내 화훼업계의 딱한 사정을 그냥 두고만 볼 수 없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전주시는 “관련법 허용범위 내에서 축하난 등 화훼류 선물을 주고받아 부정청탁금지법 때문에 침체한 화훼업계에 활기를 불어넣자는 취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지난해 김영란법 시행 이후 공직사회에서 화환 선물 관행이 자취를 감추면서 관내 화훼업계가 매출 급락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공직자 등)의 승진 또는 전보 인사 시 동료 사이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5만원을 초과하는 난, 꽃바구니 등의 선물 전달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자체적으로 이런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되 관내 기관에도 협조공문을 보내 동참을 유도할 방침이다.

김 시장은 “승진 선물 또는 화단 조성 등 꽃 생활화는 단순히 화훼업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내 선순환 경제구조를 갖추고 지역경제를 회복하자는 데 있다”면서 꽃의 생활소비 확산에 대한 강한 의지를 내비쳤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설 선물은 남원 특산물로” 장성군 ‘찾아가는 산부인과’ 인기

전국서 직거래장터 열어

남원시가 설 명절을 앞두고 최근 전국 주요 도시에서 직거래장터를 시작했다.

장터는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서초구청, 구로구청, 강서구청과 전남 광양시, 전북 혁신도시의 지방행정연수원 등에 개설된다.

국내 최대 농산물 집산지인 서울 가락시장 안의 농·특산물 홍보전시관과 과전경마장 등도 찾아가는

장터에서는 지리산과 섬진강 일대의 청정 지역에서 생산된 ‘춘향애인’ 딸기와 ‘남원참미’ 쌀, 꽃감, 각종 나물, 김부각, 추어탕, 한과, 꿀, 허브제품 등을 선보인다.

남원축협은 ‘참애유’ 한우와 지난해 전통주품평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황진이주, 주몽복분자주 등의 전통주, 남원만의 명절 특산품인 목기, 병풍도 싸게 판매한다. 남원시 인터넷 쇼핑몰인 사이바장터(www.lovenamwon.co.kr)를 통해서도 이들 제품을 싸게 살 수 있다.

/남원=백선기자 bs8787@



초음파·기형아 검사 등 무료

장성군의 ‘찾아가는 산부인과’가 임신부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5일 장성군에 따르면 이번 달부터 ‘아이낳고 기르기 좋은 환경조성’을 위해 산부인과가 없는 의료취약지를 찾아가 임신부에게 무료 산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엽마와 태아의 건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장성군은 첫 진료가 실시된 지난 11일 임신부 15명이 방문해 기본진찰, 초음파 검사, 기형아검사, 임신성 당뇨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사진>

“찾아가는 산부인과” 진료를 받은 한 임신부는 “임신하면 병원에서 받는 검진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어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면서 “특히 병원을 오가지 않고 진료 서비스를 받게 돼 만족감이 두 배”라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매달 2회씩 찾아가는 산부인가를 운영하며, 임신부는 사전에 보건소 등등록한 뒤 산부인과 이동버스가 방문하는 날에 맞춰 보건소에 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장성=김용호기자 yongho@

남도공인중개사

<혁신도시 주변 매물>

상업용지 / 주택 / 투자

1.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국도변 1,118㎡(339) 상가, 사무실, 커피숍 최적지(신주택/구창고) 매 5억9천
2. 나주시 산포면 소재지 2차선 도로변 슬라브주택(2001년 준공) 99㎡ 공장198㎡ 대지823㎡ 투자유망 매 6억9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매성리 2차선도로변 계획관리지역 남향 2층슬라브주택 대지 655㎡ 건물 169㎡ 점포충족가능 매 3억3천만원
4. 나주시 세지면 소재지 상가 및 주택 대지 752㎡ 식당 175㎡ 주택 83㎡ 주차장 양호 매 3억5천만원
5. 나주시 봉황면 죽석리 연사무소 앞 한옥 기와 주택 및 점포 대지 315㎡ 임야 2,187㎡ 주택 96㎡ 공장75㎡ 점포26㎡ 매 2억원
6. 나주시 세지면 동곡리 대지 및 전 2,940㎡ 슬라브주택 99㎡ 부속 건물 66㎡ 신축5년경과 매 2억5천만원
7. 나주시 성북동 대지 및 전(2층주택 상가포함) 3,049㎡ 나주시내 중심지 2차선도로변 2층주거지역 상가 빌라 원룸 요양시설적합 축합먼트 현대아파트 옆 매 22억

농지 / 투자

1. 나주시 금천면 월산리 전 배과수원 14,870㎡ 혁신도시인근 계획관리 생산관리 매 25억원
2. 나주시 금천면 월곡리 배과수원 및 대지 8,965㎡ 슬라브주택, 저운창고 매 8억5천만원
3. 나주시 산포면 산제리 전 3,300㎡ 2차선도로변코너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거리 투자유망 매 8억5천만원
4.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잡종지 8,311㎡ 보전관리지역 2차선도로 접혁신도시인근거리 매 5억8천만원
5. 나주시 디도면 풍산리 전 18,838㎡ 하우스농사중 2차선도로변 농림지역 22억원
6. 나주시 금천면 석전리 전 배과수원 5,655㎡ 4차선국도변 계획관리지역 혁신도시인근 투자유망 매 18억8천만원
7. 나주시 세지면 오폭리 면소재지 8,495㎡ 2차선도로변 창고 농산물가공적합 매 2억2천만원
8. 나주시 대호동 전 5,068㎡ 도시지역, 자연녹지 투자유망 매 2억9천만원

나주시 남도공인중개사
이준상 T.010-9510-115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발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판선·전원주택지

- 장성군 북이면 입암산 일 한국마을 등 적합 6만㎡ 교통중요 9억
- 담양군 월산면 용흥리 806㎡ 남향 위치중요 8000만원
- 영광 백수해안도로 1130㎡ 철산비다 전망중요 1억4500
- 담양군 용면 용치리 경관중요 남향방 2738㎡ 집 2채도 적합 2억8백
- 장흥군 안양면 수문해수욕장 2161㎡ 교환가능 3억3천

투자·매도·교환

- 양동 월산파출소부근 상업지 367㎡ 주상복합 가능 5억
- 담양군 금성면 월곡리 1488㎡ 찻집·가든 적합 1억9천
- 담양군 천변리 생신곡지 2968㎡ 차랑동행 일할할 7억2천
- 담양군 봉산면 대추리 2939㎡ 비닐하우스 4동있음 1억4천
- 나주시 노안면 5388㎡ 농장·전원생활 중요 교통중요 5억
- 충장로5가 상업지 490㎡ 다용도 가능 7억7천
- 담양군 봉산면 가곡리 3273㎡ 아파트 요양시설 적합 4억
- 담양군 금성면 국도점 7255㎡ 전원주택 아파트 통 적합 7억3천
- 나주시 남평읍 오거리 833㎡ 창고·공정용 1억천
- 광산구 고속도로에서 7분거리 1300㎡ 공장·창고적합 1억5천
- 공평적합 담양군 대덕면 잡종지 8451㎡ 남향·도로중요 7억
- 강진군 읍천면 과수원과 주택 땅 21569㎡ 사찰·요양시설 적합 5억
- 담양군 금성면 금성리 1265㎡ 전원생활적합 6500만원
- 담양군 무정면 공장·창고부지 6338㎡ 도로여건 중요 3억6500

상가건물

- 월산동 농성초부근 대지 274㎡ 3층 상가주택 298㎡ 은행1억 매도3억5천
- 월산동 무진중거리 대지 258㎡ 건평 364㎡ 은행 9천 사무실, 사육, 가내공장, 광고제작소 등 적합 3층건물임 2억7천
- 동구 대지 213평 건평 920평 강정 52억 월세 3천만원선 상등부임
- 윤림동 중심사입구 식당 땅 330㎡ 건평 327㎡ 9억2천
- 유동 원림건물 대지 238㎡ 건평 152평 원림5, 투룸7 인접 매도 6억7700

주택

- 임대 월산동 돌고개역에서 4분거리 1층 방3 가실 천에 52만원
- 월산동 큰소방도로점 대지 175㎡(53평) 건평 80㎡ 1억5천
- 함평군 해보면 문장리 신축주택 대지 604㎡ 주택 99㎡ 1억3500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급매”

수기동 제일오피스텔

- 광주 동구 수기동 23-2번지 구, 현대대장 바로 옆
- 20층중 5층, 사무실 전용, 하천방향
- 38평 (실평 22평) 시세 1억, 급매 6천만원
- 보증금 5백만원에 월세 50만원 임대가능
- 2017년 1월 25일까지 이전하는 조건

문의 H. 010-3605-500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수수료,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수수료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산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로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채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